

감기환자 몰린 선별진료소 ‘복새통’... 진단검사 과부하

면봉으로 받는 검사, 대기만 3시간 엑스레이 검사, 대기자 많아 포기 검사결과 받는데 이틀씩 걸리기도

정부규정 의사환자 포함 안되면 진단비용 16만원 자비 부담해야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밀폐실험실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분석에 앞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검체 분석이 24시간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검체 채취 기관의 과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탓이다. 대기 시간은 기본 2~3시간, 검사 결과를 받는데 최소 하루, 길게는 이틀 가까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다. 코로나19 진단 비용 면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잦은 충돌도 일고 있다.

◆검사 결과 40시간만에 받아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선별 진료소 가운데 검체 채취가 가능한 기관은 총 492개다. 이 기관들은 일부 감기 증상 만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복새통을 이루

고 있다.

최근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은 김모씨(42세 여성)는 “주운 야외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면봉으로 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엑스레이는 너무 대기자가 많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진단키트를 내놨지만, 검사 물량이 많아지면서 결과를 받는 시간도 하루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정모씨(54세 남성)는 지난 23일 새벽 갑작스런 발열과 인후통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새벽 2시경 진단 검사를 마쳤지만, 결과는 24일 오후 4시가 돼야 받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40시간이 걸린 셈이다. 진단이 늦어지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커졌다.

정씨는 “다행히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지만 그 사이 시설 거주자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다”며 “만일 양성이었다면 밀접접촉자들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시

간을 40시간이나 방치한 것 나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단의학과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원래 6시간 안에 나오지만 결과가 애매한 경우 시간이 길어진다”며 “확실한 양성도 음성도 아닌 애매하게 나오는 일도 있기 때문에 검사한 기관에서 그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느라 재검을 하게 되면 40시간 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체 채취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지적했다.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일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빠른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총괄조정관은 “매일 7000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부족하다”며 “다른 부분보다 검체 채취 역량을 키우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6만원 진단비용도 부담

진단 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진단,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규정한 ‘의사 환자(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정한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원인 미상 폐렴환자다.

따라서 이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선별 진료소나 응급실 등을 스스로 찾아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는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검체 채취 외에 엑스레이 추가 검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5만원 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검사와 격리, 치료비용 등 전액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비용은 개인이 선지급 해야하는 구조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김씨는 “정부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찾으라고 안내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사의 소견을 어떻게 받으라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文 대통령 “코로나19 충분히 극복, 반드시 이겨낼 것”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 주제

“의료진·방역 인력에 존경·감사
가용인원 총동원 사태진정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를 찾았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구를 방문해 지역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대구지역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지역민에게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의 말부터 건넸다.

이어 “코로나 19에 맞서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대책본부 관계자들, 범정부지원단과 민간기관들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밤낮없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헌신적 노력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인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문제는 시간과 속도”라며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25일)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입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나선 금융권 신한·하나銀, 신규대출 시행

금융권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면서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먼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유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하나은행은 총 한도 4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분할상환 도래 시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 준다.

주요 거점 점포에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을지로 본점과 명동 사옥, 세종시 등 3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美 증시 3% 급락에도... 코스피, 1.18% 기술적 반등

코스닥도 2.76% 급등
코스피지수 2100선 회복

코스피 지수 급락세가 진정되며 1% 이상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코스닥도 2.76% 급등했다. 전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시가 3% 이상 하락했음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2100선을 회복하며 4% 가까이 급락했던 전날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다. 전 거래일보다

24.57포인트(1.18%) 오른 2103.6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장을 이끌었다. 이날 개인은 6088억원, 기관은 1153억원을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대폭 하락했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도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94%), 삼성전자우(1.85%), 삼성바이오로직스(3.9%), 네이버(3.53%) 등이 상승했다. 시총 상위 50위 기업 중 하락한 종목은 16개에 불과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공포 심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도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여전한 매도세로 일관했다. 전 거래일에 이어 769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 감염자수가 미국, 유럽보다 일본, 홍콩 등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



25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18%, 2.76% 올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광 게시판. /송태화 기자

다”며 “신흥국내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자금 유출이 두드러져 주식자금 유입세는 당분간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